

알칼리에 강하여 비누로 삶는다던가 표백도 할 수 있다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것만이 아니라 코튼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물에 젖은 상태에서는 강도가 10~15% 향상하는 코튼은 울이나 실크와 달라서 알칼리에 강하고 비누나 세제로 세탁할 수 있다. 뜨거운 물로 세탁하기도 하고 더러움이 많을 때는 비누로 삶는다던가 표백도 할 수 있다. 열에 강하기 때문에 다림질 마무리는 고온에서 아름답게 할 수도 있고 타더라도 녹는 일이 없기 때문에 합성섬유와 같은 열용융으로 화상을 당하지 않는 아주 믿을 수 있는 섬유이다. 또한 화학섬유라던가 울과 같이 정전기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볼꽃을 내며 찌지적거리는 소리라던가 의복이 몸에 휘감기는 불쾌감, 공기 중이나 바닥의 먼지 등이 달라붙는 일이 적다. 오염이 비교적 잘 달라붙지 않으나 오염이 붙는다고 해도 탈락하기 쉽기 때문에 청결한 섬유라고 말할 수 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염료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색상을 풍부하게 염색할 수 있다. 아울러 염료가 흡착하기 쉽고 염색견뢰도도 비교적 우수하다. 또, 코튼을 긴장한 상태 하에서 가성소다 액에 담그면 팽윤하여 천연의 꼬임이 없어지게 되어 편평한 단면은 둥글고 굽게 되어 실크와 같은 광택이 나옴과 더불어 강도도 증가한다. 이것을 실켈트 가공이라고 하는데 실켈트 가공을 행한 코튼은 실기한 고급면으로써 중시되고 있다. 그 반면 코튼에는 주름이 생기기 쉽고 수분에 의하여 수축하기 쉽고 장시간 일광에 노출되면 황변하여 약하게 되고 곰팡이에 침해되기 쉬운 단점도 있다.